

때때로 임상에서 이물이나 치아구조물들이 악골 내에서 협측에 있나 혹은 설측에 있나를 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가장 간단한 방법을 협측상법칙 혹은 이동이라 한다.

이것은 동일부위의 다른 각도에서의 2장의 방사선사진이 필요하다. 처음 방사선사진은 고유의 구내촬영방법에 의해서 얻어내고 두번째 방사선사진은 방사선 촬영기의 각도를 간단히 근, 원심방향으로 변형시켜서 얻어낼수 있다. 이로써 radiation beam은 전방 또는 후방을 향해 조사되는 바 만약 어떠한 물체나 구조물이 협측에 위치한다면 그것은 변형시킨 radiation beam의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이동되어 나타난다. 만약 어떠한 물체나 구조물이 설측 혹은 구개측에 위치한다면 그것은 radiation source의 이동한 쪽으로 이동되어서 나타난다.

그림으로 예를 들면

그림 1A는 하악 구치부의 교합사진이다. 검은물체는 협측면부위에 위치되어 있는것을 볼수있다. 1A에서 보여준 동일부위의 표준촬영사진이 그림 1B이다. 이물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림 1C와

같은 두번째 표준촬영을 하였다. 즉 X-ray cone을 원심측으로 이동시켜 찍은 사진이다. 이때 물체는 근심쪽으로 이동되어 나타났는데 이는 협측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A에서 검고 동그란 물체가 두개의 소구치 근단에 위치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그림 2B에서도 원심이동하여 찍은 결과 제 1 소구치 근단의 물체는 치근단으로부터 근심쪽으로 이동하여 나타났고 제 2 소구치 근단의 물체는 그대로 있었다. 따라서 제 1 소구치 근단의 물체는 협측에 있고 제 2 소구치 근단의 물체는 근단에 부착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원칙을 이해하고 연습을 하여보자

매복된 지치는 제 2 대구치와 어떠한 관계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림 3A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찍었고

그림 3B는 원심으로 이동시켜 찍은 것이다. (즉 X-ray cone을 전치부로 향하여 찍은것이다.)

☐ 매복지치는 제 2 대구치의 협측에 있나, 설측에 있나?

☐ 협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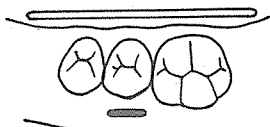


DIAGRAM 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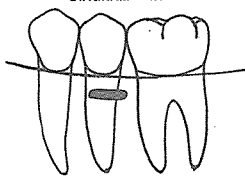


DIAGRAM 1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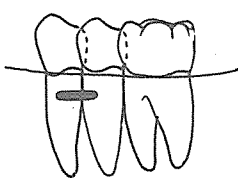


DIAGRAM 1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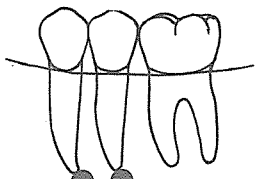


DIAGRAM 2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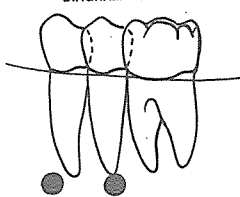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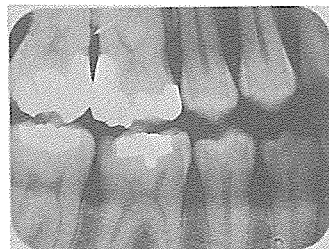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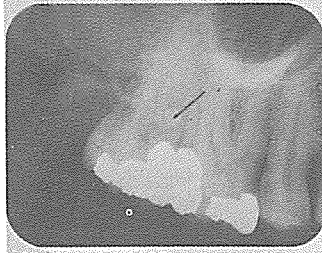


DIAGRAM 2B



3A



3B

서울특별시 인정 제12호



아세아치과기공소

ASIA DENTAL LABORATORY

대표 이 흥 규

서울 종로구 종로 5가 115번지

(763) 8559 · 7518